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나주 KISA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 노고 격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업무고충 및 개선의견 청취 등 현장소통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7월 2일(목), 전남 나주에 소재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송경희 위원장이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침해 대응 최일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신고 접수·상담,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privacy.kisa.or.kr) 및 상담전화(118) 운영 중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딥페이크(deepfake) 등의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침해신고센터에 2024년 약 4만건, 2025년 약 5만 건의 침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침해신고·상담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상담·신고 접수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1분기)
건수	43,804	40,797	50,963	12,883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민 현장 일선에서 겪는 다양한 업무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대응을 지원하고 상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인력들의 고충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조사1과	책임자	과 장	윤여진	(02-2100-3111)
		담당자	사무관	김현익	(02-2100-3120)

